

민주 경선 선거인단 신청 100만명 육박 단체장·지방의원들 지방선거·총선 대비 유력 후보에 줄서기

인맥·조직 총동원 '후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지 11일 만에 신청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했다.

〈관련기사 3·4면〉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흥행몰이에 성공하면서 '뒷발'인 광주·전남에선 특정 후보 지지율 높고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단체장·지방의원들 줄서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26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신청자 수는 전국적으로 96만7000명을 넘었다.

지난 15일 모집이 시작된 이후 11일 만으로, 민주당은 선거인단 신청자 수가 최소 150만 명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치열해지면서 광주·전남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이들은 특정 후보 홍보는 물론, 지지 후보에 우호적인 경선인단을 통해 인맥과 조직을 풀기동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지구당위원장과 시·군·구 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각각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거나 불명에서 지원하고 있다. 같은 당 유력 대선 경선 후보 지지 여부로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등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갈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단체장들은 물론 광역의원들도 다음 공천 등을 염두에 두고 당선 유력 후보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의회 한 의원은 문재인 후보를 비공식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원은 "현재 도의원 58명 중 33명이 민주당 소속인데, 이중 절반 이상은 문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선 지지자들이 대놓고 나설 수 없지만 탄핵 일정이 정해지면 어떤 형태로든 지지를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한 군수는 안희정 총남지사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안 지사는) 분열된 호남을 통합시킬 수 있다.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당과 통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성향을 감안해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자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들도 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후보 간 정치 지형 속에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향후 후보 결과와 대선 결과 등에 따라 정치 활동에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현재로서는 탄핵 결정이 최우선이다.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여부는 후순위다. 탄핵 결정 이후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선거인단 모집이 흥행하면서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들이 지역현안은 뒷전인 채 벌써부터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유력 대선 주자 후보를 둘러싼 줄서기와 편가르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인데,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상호 반목과 갈등이 심해져 지역분열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네팔에 문 연 광주진료소 지난 25일 네팔 파르밧현 디무와마을에서 열린 네팔 광주진료소 개소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을 비롯한 한국 의료진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진료소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탄핵, 오늘 최후의 결전... 차 불출석 野 "특검 연장하라" 결의대회·농성

황교안 대행 오늘 입장 밝힐 듯

'박영수 특검'의 종료로 이를 앞둔 26일 수사기간 연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또 27일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하는 등 '탄핵-특검정국'이 절정으로 치닫하고 있다.

〈관련기사 2·3·6면〉

특검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야당은 최후 수단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을 관철하기 위해 농성

까지 불사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황 권한대행은 27일 수사연장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은 민심을 외면한 오만에 국민을 심판에 자초하지 마라"라며 "촛불의 열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26일 저녁 국회에서 의총을 연 국민의당은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24일 농성을 시작한 주승용 원내

대표는 이날 "당연히 연장을 해줘야 하는 기속재량(기속사항)이지, 황 권한대행의 자유재량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용을 촉구하며 총리 공관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입장을 결정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현재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에는 대통령 대리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이번엔 인천지법/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업을 떠나 변호사로 새출발 하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광주 송원고(19회), 한양대 법학과(86학번) 졸업
- 전남대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7기)
- 광주지법 / 광주지법 목포지원 / 광주고법 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이화여대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 남원시 / 양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인천지법 /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

변호사 손진홍 올림

- 업무개시: 2017. 2. 14. • TEL: (062)719-3115
- 업무장소: 광주시 동구 동명로 109(지산동) 신영빌딩 3층
- 개업소년: 2017. 3. 10.(일) 오후 5시부터

광주 문화예술인 38명 '블랙리스트' 집단 소송

광주 문화예술인 38명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에 나섰다.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따르면 광주민중예술단체총연합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지난 25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허달용 작가 등 광주 문화예술인 38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피고는 정부를 비롯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운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

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이다.

청구액은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정했다. 소송을 맡은 민변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한 책임자들에게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 책임을 묻고 정당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배경과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히말리아 오지 파르밧에 광주 인솔 네팔 광주진료소 문 열었다 ▶2면
양희영 LPGA 혼다 타이랜드 우승 22연타...대회 역대 최저타 ▶21면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창립 46주년 **TTG** 대한민국 최우수여행사상 16년 연속수상! 명예의 전당 입성
TTG(Travel Trade Gazette): 전세계 관광산업 전문가 및 기자단이 선정하는 관광업계의 노벨상

5월 황금연휴에 떠나는
일본 북해도 벚꽃여행
동반자 15만원 할인 프로모션!
3월 17일까지 예약자 한정/예약후 3일 이내 완납기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4/30 출발	5/1 근로자의 날	2 연차	3 석가탄신일	4 출발	5 어린이날	6
7	8	9	10	11	12	13

[2016 한국표준협회] 한국서비스대상 종합대상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

▶ 추가경비 없는 골격여행!
[ALL포함/폼겨] 북해도 핵심일주 4일 1,699,000부터 선택관광 없음

▶ 4/30 5/4 [단2회] • 히토세(노보리베츠/삿포로)에서 오타루(삿포로/삿포로)까지
• 홋카이도 3박 노보리베츠 만세카, 니세코 힐트, 로이론 삿포로 또는 동급
• 일차 라벤정식 조식 제공 • 북해도 3대계+음료, 주류 무제한
• 올레인 유구르(1인 1봉 200ml) & 오토루 소프트 아이스크림 1개 증정

▶ 협곡지대 소문료 관광 포함!
[정통] 북해도 핵심일주+소문료 4일 1,499,000부터 선택관광 없음

▶ 4/30 5/4 [단2회] • 히토세(노보리베츠/삿포로)에서 오타루(삿포로/삿포로)까지
• 홋카이도 3박 노보리베츠 만세카, 니세코 힐트, 로이론 삿포로 또는 동급
• 일차 라벤정식 조식 제공 • 소문료 쿠로다에 로프웨이 편도 탑승

▶ 세계3대 야경 하코다테 포함!
[정통] 북해도 핵심일주+하코다테 4일 1,549,000부터 선택관광 없음

▶ 4/30 5/4 [단2회] • 히토세(노보리베츠/삿포로)에서 오타루(삿포로/삿포로)까지
• 홋카이도 3박 노보리베츠 만세카, 니세코 힐트, 로이론 삿포로 또는 동급
• 일차 라벤정식 조식 제공 • 하코다테 로프웨이 왕복 탑승

▶ 알뜰하게 떠나는 북해도 여행!
[알뜰] 북해도 핵심일주 4일 1,299,000부터 선택관광 없음

▶ 4/26 [단회] • 히토세(노보리베츠/삿포로)에서 오타루(삿포로/삿포로)까지
• 홋카이도 2박 노보리베츠 만세카, 니세코 힐트, 로이론 삿포로 또는 동급
• 광주-인천공항 / 무안공항-광주 수송 포함

홋카이도 지역 한정만약 제공
삿포로 클래식 (상인관광객만 350ml)

기념품 증정
오르골당 5%할인권 OR 기념품 핸드폰줄

3대계 무제한 제공
탈게, 대계, 왕게 무제한 제공

인솔자 동행
배터리인솔자 동행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새벽에 떠나 새벽에 오는 탁안 여행
5:10 출발 / 1:10 도착 *입출성품 출발시간은 다릅니다.

대한항공 직항
국적기 대한항공 이용으로 편안한 여행

온천욕 체험
전 일정 온천욕 체험

기권포환내역: 유류할증료(발권일/현금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가이드/가이드비: 부분은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인)지배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선택관광(선택) 있음/없음 상황에 따라 선택관광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이 선택시 대체입장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종료규정: 일반여행업 제467호(서울시 중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 기차여행 상시 5억 원 보험보장 5억원 가입 • 여행보험처리센터: 1588-8882 • 여행보험사: 인천 / 김해 / 대구 / 무안 / 청주공항 • 최소출발 10명(입부상승제) • 2등급 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항공, 버스, 택시, 크루즈(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열차, 입국권, 숙박권 등은 판매규정에 따라 취소수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